

본회, 롯데그룹제품 전면 불매운동 전개 결의

- 정부에 돼지고기수입 즉각 중단 촉구

홍 보 부



본회는 6월 29일 오후 2시 양돈회관 대회의실에서 80여명의 대의원과 90여명의 지부 임원 등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돼지고기 수입조치와 관련한 대응방안과 협회조직의 활성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전동용회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임시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정부의 돼지고기 수입허용 조치를 집중 성토했고, 돼지고기 수입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

등 6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의원들은 또 양돈농가들의 어려운 사정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15개의 수입업체중 앞장서서 돼지고기 수입에 열을 올리는 롯데햄·롯데우유(대표: 강진우)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여타 농민단체와 연계해 대대적인 불매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롯데햄·롯데우유 강진우 사장은 현재 육가공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데, 15개의 돼지고기 수입업체중 6월 22일 현재 가장 많은

180톤의 돼지고기를 수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참석자들은 사료업체로서 양돈농가들에게 사료를 판매하면서 돼지고기를 수입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를 비롯해, 기타 수입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책은 협회내에 설치돼 있는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명복)에 전권을 일임했다. 이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는 금명간 회합을 갖고 수입조치에 따른 구체적인 안 마련과 행동지침을 결정, 전국 각

지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참석자들은 돼지고기수입이 허용된 상태에서 양돈업계가 일치 단결, 이를 극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양돈업자들로 구성된 양돈인 경영회가 오히려 소극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자 중소기업 양축농가들이 앞장서서 양돈농가의 어려움을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호소하는데 써달라고 즉석에서 2,090만원의 찬조금을 기탁하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우리 양돈인들은 정부의 5.28 돼지고기 수입 허용조치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고 전제한 후 「지난 6월 4일 지역대표자회의를 이번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의 즉각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결의문은 「그럼에도 정부는 6월 19일 오히려 물가안정을 위해 돼지고기와 쇠고기수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양돈인들은 망연자실, 이제 생업을 포기당하는 위기감을 느낀다」며 ▲돼지고기 수입조치 즉각 철회 ▲정부의 신뢰성 있는 축산정책 의지 표명 ▲돼지값이 물가상승의 주범인양 발표하는 양태 즉각 중단 ▲축산원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 ▲육가공업체의 수



입자제를 촉구하고 국민들에게 계속 값싼 돼지고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임시총회가 끝난후 신구범 축산국장과 즉석 간담회를 갖고 양돈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돼지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신구범 축산국장은 이번 돼지고기 수입조치는 물가안정 차원에서가 아니라 양돈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어렵게 확보한 일본의 수출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취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이해를 구한후, 돼지산지가격이 14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즉시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신국장은 경제기획원에서 돼지가격이 12만원이 될때까지 수입을 확대하겠다고 한 내

용은 농림수산부와 전혀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하고, 그렇게 될 경우 자신은 이미 축산국장의 자리에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

신국장은 금년말 돼지가격은 13만4천원~14만원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정부는 돼지가격안정을 위해 금년 정기국회에서 축산법을 개정, 돼지와 소의 상하한가격을 고시하는 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영한 전무이사는 임시총회에 앞서 돼지고기 수입과 관련해 그동안 협회가 취한 일련의 활동사항과 최근의 양돈업계 동향을 보고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 대의원들이 채택한 결의문과 찬조금 기탁자 내역은 다음과 같다.

결 의 문

우리전양돈인들은 정부의 5.28 돼지고기수입 허용조치에 놀라움을 금치못하면서 6월 4일 전국양돈지역대표자회의를 통해 이번 조치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즉각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6월 19일 오히려 물가안정을 위해 돼지고기와 쇠고기수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므로써 양돈인들은 망연자실, 이제 생업을 포기당하는 위기감을 느끼면서 긴급 전국지역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재차 결의하며 이의 관철을 위해 전국 투쟁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1. 정부는 5.28이나 6.19조치가 물가안정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않을 뿐더러 오히려 양돈업에 불안만 고조시킨다는데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이상 이를 즉각 철회하라.
1. 정부는 6.19 조치로 양돈 생산기반이 붕괴되기 이전에 구체적이고도 신뢰성 있는 축산정책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밝혀라.
1. 정부는 돼지값이 물가상승의 주범인 것처럼 발표, 도농간의 갈등은 물론 양축농가의 대정부 불신을 심화시키는 일들을 즉각 중단하라.
1. 정부는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앞서 국내축산업이 생존할 수 있도록 축산원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를 적용 등 부당한 부담을 우선적으로 철폐하라.
1. 우리는 양돈산업 발전없이 육가공업 발전도 없음을 인지하고 육가공업체들의 돼지고기 수입자제를 촉구한다.
1. 우리전양돈인은 최근 5.28·6.19 조치에 관계없이 국가식량산업인 축산업에 종사한다는 긍지를 가지고 맛 좋고 값싼 돼지고기를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1990. 6. 29.

전 국 양 돈 인 일 동

◇ 찬조금 기탁자 명단

소	속	성	명	금	액
회		장	전 동 용	100	만원
부	회	장	조 진 도	100	만원
부	회	장	기 정 도	100	만원
부	회	장	최 상 백	100	만원
부	회	장	이 명 복	50	만원
충	남	도	협 의 회 이 상 구	100	만원
경	북	도	협 의 회 조 옥 봉	100	만원
전	북	도	협 의 회 김 영 범	100	만원
전	남	도	협 의 회 김 태 환	30	만원
서	인	울	지 부 나 일 규	100	만원
인	천	지	부 김 원 호	100	만원
춘	천	성	지 부 최 만 수	100	만원
경	기	광	주 지 부 육 창 희	30	만원
김	포	지	부 부 이 중 열	30	만원
부	천	지	부 부 이 현 윤	30	만원
양	주	지	부 부 안 성 목	30	만원
과	주	지	부 부 정 성 만	30	만원
포	천	지	부 부 정 관 진	30	만원
용	안	시	지 부 이 송 록	50	만원
안	원	성	지 부 김 조 찬	20	만원
원	주	성	지 부 김 조 인	10	만원
음	성	지	부 이 상 훈	50	만원
철	원	지	부 원 중 억	50	만원

소	속	성	명	금	액				
서	산	안	지	문	승	현	50	만원	
청	양	지	부	문	원	희	20	만원	
전	남	광	주	최	희	태	20	만원	
순	천	승	주	이	백	말	20	만원	
나	주	지	부	전	재	명	20	만원	
화	순	지	부	조	영	송	20	만원	
구	레	지	부	임	승	환	30	만원	
목	포	지	부	최	채	우	20	만원	
광	양	지	부	최	길	남	20	만원	
보	성	지	부	임	형	석	20	만원	
무	안	지	부	박	문	재	20	만원	
마	산	지	부	하	오	조	30	만원	
밀	양	지	부	장	현	출	30	만원	
산	청	지	부	민	영	만	20	만원	
울	산	울	주	지	성	정	표	50	만원
양	산	지	부	부	권	형	필	30	만원
진	주	지	부	박	만	중	30	만원	
계	주	지	부	김	상	호	30	만원	
대	왕	지	부	성	정	영	표	50	만원
한	림	지	부	원	류	근	20	만원	
춘	강	지	부	원	준	은	50	만원	
대	주	지	부	정	이	정	50	만원	
합				계			2,090	만원	

※ 임시총회 이후 기탁자 명단은 본지 8월호에 게재 예정임.

돼지고기 수입과 관련한 우리의 주장

우리 양돈인들은 축산물 수입개방으로 큰 시련을 겪고 있는데, 정부의 5.28 육가공원료 돈육수입허용 방침으로 불안감이 극도에 달하고 있으며, 생업을 계속 하느냐 마느냐 하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돼지고기를 수출유망품목으로 지정하고는 수출업자에게 세제, 금융지원이 아닌 돈육수입을 허용함으로써 정부가 주장한 수출산업육성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우리 양돈인은 이제 양돈산업이 국민의 먹거리생산과 농가소득원으로 계속 발전하느냐 아니면 생산기반이 붕괴되느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음을 인식하고, 6월 4일 긴급소집된 본회 전국임원·지부장회의에서 장시간 현안문제에 대한 토의를 거쳐 우리의 생존권 수호를 위한 전국 양돈인의 의사를 분명히 밝힌다.

1. 우리 양돈인들은 최근 돈가형성이 비정상적인데는 인식을 같이 하나 이는 지난해 혹심한 불황으로 지난 1년간 전체 양돈농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8만농가가 생업을 포기하고 그나마 남은 농가도 마릿수를 대폭 감축하고 빚더미 위에 선 회생의 결과로 나타난 일시적 현상이며,
2. 돈가의 주기적 변동은 불가피한 것이나, 정부의 가격안정 정책부재로 가격폭락이 심화되었으며, 가격폭락시에는 8만호가 쓰러지도록 방치하다가 일시적 상승에 수입을 허용하는 것은 수익성 저하를 원료문제에 귀착시키고 있는 몇몇 독점식육가공자본(재벌기업)만을 위하고 양돈농가에게는 생업을 포기하게 하는 축산업 쇠퇴의 고정화정책으로, 이는 우리 축산업 더 나아가서 국가기본산업이며 국민의 생명산업인 농업의 포기정책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3. 우리 양돈인들은 육가공원료육 생산비 절감에 필요한 축산원자재의 관세의 환급이나 부가세의 영세를 적용 및 도축세 감면, 금융지원 등 경쟁국이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도를 수년간에 걸쳐 수십차 건의하였으나 그 어느것 하나 시행되지 않고 있음은 돼지고기 수출이나 육가공산업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없다고 밖에 해석할 수 없으며, 오히려 수입을 통해 이를 육성코자 하는 것은 통증환자에게 마약을 투여하여 일시적으로 통증을 멎게하는 처방으로 발상자체가 잘못되어 국내 양돈업을 붕괴시킬 수 밖에 없을 것이다.
4. 5.28 돈육수입조치가 한시적인 것이라고는 하나, 정부의 쇠고기수입 등 지금까지의 정책이 그랬던 것처럼 양돈산업의 포기를 위한 시작으로 귀결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5. 정부는 최근 개방화시대에 대비한 업계의 자구노력 일한인 자조금제도 추진도 그 핵심을 흐려놓아 추진을 어렵게 하는 등 양돈농가를 비롯한 전체 축산농가의 사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다.
6. 재벌기업에 혜택을 주는 돼지고기 수입허용과 같은 정책의 일대변화를 양돈농가에게는 극비리에 추진하는 등 아직도 구시대의 관료적·비민주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제부터라도 민주화시대에 맞는 민주행정을 수행하라.
7. 인력난, 분뇨처리, 전근대적인 유통문제와 지난해의 혹심한 불황으로 빚더미에 허덕이는 양돈농가에게 이번 돼지고기 수입 허용조치는 양돈업포기 더 나아가 국내농업포기라는 위기적 상황임을 인식하고 전체 양돈농가는 다음과 같이 이에 대한 대책을 강력히 요구한다.

다 음

1. 정부는 5.28 육가공원료 돈육수입 허용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축산원자재에 대한 관세·부가세 감면과 도축세 감면 및 금융지원을 통해 생산비 절감과 수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조치하라.
2. 최근의 돈가등귀는 일시적 현상으로 지난해 폭락시를 상기하여 육가공업체는 자숙하고, 국내 양돈산업 발전과 연계가 없는 육가공산업의 발전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명심하라.
3. 정부는 양돈산업 발전을 위한 업계의 자구 노력인 자조금제도를 명실상부하게 실시하고 이를 적극지원하라.
4. 우리 양돈인들은 최근 전국농어인후계자들의 생존권수호를 위한 축산원자재 부가세 영세를 적용 백만인 서명운동을 적극 지지하며, 정부도 이 운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

1990년 6월 4일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
전국임원·지부장일동